



지역 소식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 욥기 12:12

봉사하는 황혼기, 분당 와드 원로 회원들

분 당 와드의 안식일 아침은 특별한 환영 인사로 시작된다. 매주 일요일 아침, 분당 와드 입구에서 회원들을 안내하는 이들은 대제사 그룹 지도자와 보조들이다.

대제사 그룹 지도자 이홍복 형제와 제1보조 김동재 형제의 나이는 각각 75세, 69세다. 50대인 제2보조 김영서 형제, 서기 조택규 형제의 나이를 더하더라도, 대제사 그룹 지도자들의 평균 나이는 63세다. 이홍복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 부름이 왔을 때 많이 고심했습니다. 제 나이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생각했죠. 젊은 사람이 이 부름에 더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부름을 받고 봉사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 그룹의 주된 역할은 와드 회원들이 성전에 가도록 돕는 것, 가족 역사 사업을 돕는 것, 가정 복음 교육, 회원들의 복지를 돕는 것 등이다. 분당 와드 대제사 그룹 지도자들은 와드 성전 방문 날에 추천서를 가진 모든 회원이 함께 성전에 가도록 독려한다. 또한, 등산 모임, 짜장면 데이(Day) 등 정기적으로 와드 전체 또는 대제사 그룹 차원의 우정 모임도 마련한다.

분당 와드 장로 정원회의 한 형제는, “대제사 그룹은 부모님과 같다”며 “우리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항상 보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더 의지하고 따르게 된다.”고 말한다.

이홍복 형제를 비롯하여 분당 와드 대제사 그룹 지도자들은 교사, 청남 회장단, 서기, 지부 회장단, 감독단, 고등평의원 등 오랫동안 다양한 부름에서 봉사해 왔다. 제2보조 김영서 형제는 황혼기의 그들이 계속 활발히 봉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했습니다. 연세가 많은 회원들은 ‘이제는 부름과 봉사에서 물러나서 좀 쉬자’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직접 봉사에 참여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다가가고,

우리는 가능한 나이든 모든 회원들이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믿습니다. 감독과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칠십대와 팔십대의 형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좁은 길을 걸어 온 여러분의 조언과 영향력이 우리에게겐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성공담 즉 어떻게 마음의 고통이나, 낙담을 극복하여 그러한 경험을 통해 더 강하게 되었는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봉사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과 위대한 사업을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굳건한 복음의 기초가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면에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충실한 봉사에 대한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해오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셔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연로한 회원들에게 드리는 말씀, 1989년 10월 연차 대회

회원들이 영적으로 강화되도록 새로운 동기 부여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동안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연장자들이 봉사하는 모습에서는 연륜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홍복 형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나이가 많아서 특별히 더 좋은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명에

순종하고 부름을 행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이 다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나이가 많아서 오히려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감독 시절 정말 엄한 감독이었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는 생활 수준도, 문화도, 습성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말을 경청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흐름에 맞추어 그들을 인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청춘 합창단

분당 와드 원로 회원들은 정월회 활동뿐 아니라 아름다운 합창단의 일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합창단의 이름은 ‘청춘 합창단’이며, 소수를 제외하고는 30명의 단원 대부분이 60~70대다.

분당 와드에서는 부활절, 와드 대회 등 특별한 날에 발표하기 위해 와드 합창단을 구성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연세 지긋한 원로 회원들은 와드 합창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해 왔다. 지난 성탄절 무렵, 원로 회원들로 합창단을 구성해 보자는 몇몇 회원들의 제안에 따라 청춘 합창단이 구성되었다. 음악적으로는

미흡할지 모르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연습했고, 특별 성탄절 성찬식에서 3~4곡의 합창곡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합창 단원 자신과 회원들의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 회원은, “성탄절 기간 동안 참석했던 성찬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모임이었으며, 영적으로 충만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 몇몇 회원들은 합창에 감동하여 눈물을 보였다.

최고령 합창 단원 중 한 명인 이옥순 자매는 이렇게 전한다.

“연습하고 발표하면서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계속 합창단 활동을 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얻을 거예요.”

매주 연습을 하고 자주 공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청춘 합창단은 1년에 1~2회 정도의 발표를 목표로 잡고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

원로 회원들의 봉사와 모범은 새로운 세대에게 귀감이 된다. 젊은 세대는 신앙의 선배로부터 감동을 받으며, 그들의 발자취를 따른다. 구원 사업에 동참하여 봉사하는 황혼기는 그 어느 때보다 젊고 아름답다. ■



온 식구 함께 모이는

경산 지부 가정의 밤



지난 1월의 어느 저녁, 경산 지부 집회소에 불이 켜지고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경산 지부 가정의 밤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어둡고 추운 바깥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집회소는 밝은 웃음소리로 활기찼다.

이날 조경희 자매는 '성전'을 주제로 가정의 밤 공과를 진행했다. 참석한 회원들은 가족이 함께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법을 토론했다. 비회원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한 어린이는 "성전에 가기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해 회원들을 놀라게 했다. 성전에 대한 노래도 배웠다.

이어진 가정의 밤 활동은 딱지치기와 술래잡기였다. 이 활동을 준비한 이들은 초등학교 어린이인 윤여진 자매와 이진선 자매였다. 특히 윤여진 자매는 가정의 밤을 계기로 침례를 받은 신회원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놀이를 즐겼고, 성인 회원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도 떠올렸다.

경산 지부 합동 가정의 밤은 대구 스테이크 회장이자 경산 지부 회원인 이병만 형제와 당시 지부 회장인 정우갑 형제의 토론에서 비롯되었다. 경산 지부 회원들이 신앙과 간증을 키울 방법을 논의하던 중, 이병만 회장은 합동으로 가정의 밤을 할 것을 제안했다. 참석자 중 대부분이 가족 중 혼자 회원인 상황에서 교회에 다닌다. 가정의 밤을

통해 지부 회원들은 가족이 되었고, 가정에서 배워야 할 복음을 경험하고 배웠다. 재작년 9월에 시작된 가정의 밤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매주 빠짐없이 지속되었다. 경산 지부에서 일요일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회원 수는 40여 명이다. 이 가운데 20여 명이 매주 가정의 밤에 참석한다.

모든 참석자가 돌아가면서 공과와 활동을 준비한다. 직접 준비하면서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자라났다. 우정이 돈독해지면서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실제 3명의 구도자가 가정의 밤을 계기로 침례를 받았다.

지부 회원인 이윤경 자매는 다른 회원들의 생일마다 케이크를 준비해서 지부 회원들과 함께 생일을 축하해 준다. 이윤경 자매는 "생일을 축하하며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느낀다"라며 사랑스러운 의도를 설명했다.

경산 지부 가정의 밤은 혼자 교회에 다니는 회원들에게는 절실한 프로그램이다. 실제 가족은 아니지만, 4세에서 75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대가족을 이루어 함께 가정의 밤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복음을 배우고 기도하며, 즐겁게 이야기한다.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경산 지부 가정의 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신앙과 영으로 거둔 승리의 나날들 I : 북극동 선교부(1955~1962) 조직과 선교사 파송

1955년, 일본 선교부가 남극동 선교부와 북극동 선교부로 분리되었다. 북극동 선교부로 편입된 한국은 같은 해 8월 2일, 북음 전도 지역으로 헌납되었다. 선교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며 주님의 손길과 축복이 한국 땅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국 교회 60주년을 기념하며, 헌납 당시 한국에서 행해진 선교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에서 제공한다.

회 복된 복음이 미국 동부의 뉴욕 주에서 중서부의 솔트레이크 밸리를 거치고, 태평양을 넘어 아시아 대륙에 안착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01년, 히버 제이 그랜트 장로가 개설한 일본 선교부는 1924년에 잠정 폐쇄되었다가 1947년에 다시 개설되었다. 1954년 9월에 해롤드 비 리 장로가 한국을 방문한 뒤 1955년 4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일본 선교부를 북극동 선교부와 남극동 선교부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회복된 복음이 뿌리내리는 데, 제1막을 6:25 참전 후기 성도 군인들이 담당했다면, 제2막의 주인공은 북극동 선교부의 선교사들이었다.

선교사들의 한국 파송 전후, 전쟁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생활 형편은 매우 열악했다. '선교사 파송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국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북극동 선교부의 선교사로 또다시 한국에 왔던 뉴웰 김볼(사진 참조)은 이렇게 적었다.

"[1955년]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와 함께 문산에서 가진 군인 대회에서 나는 로버트슨 [일본 선교부] 회장에게 한국에 선교사가 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냐고 물었다. 그는 이 나라가 선교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려면 적어도 한 10년은 걸릴 것이라며 지금은 너무 상황이 나쁘고 황폐하다고 말했다."¹

헌납이 목전에 있던 시기, 스미스 장로는 한국에서 선교사가 생활할 수 있을지 현지 군인 지도자에게 조언을 구했고 역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스미스 장로는 계시의 영에 따라 1955년 8월 2일, 한국을 북음 전도 지역으로 헌납했다.

헌납 기도에서 스미스 장로는 이 땅을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뛰어난 곳이 되도록 사탄에게 문자 그대로 명령했다. 그는 그때까지 군인 조직의 인도를 받고 있던 한국 회원들에게 축복이 임하고, 한국 회원들이 스스로를 준비시켜 이 나라의 문이 열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받아들이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이제는 파송된 주님의 사자들이 그 사슬을 풀어내야 했다. 실로 만만치 않은 현실적, 영적 난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께서서는 한국을 위한 일정보를 갖고 계셨다. 1955년 11월에 로버트슨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북극동 선교부 회장에서 해임되고 폴 시 앤드러스 회장이 부름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1955년 초, …… 일본에 이런 조그만 발판[과] 후기 성도 군인들을 제외하면, 교회는 아시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은 헌납되지도 않았고, 문을 열지도 않았다. 오키나와도 마찬가지였다. 홍콩은 헌납되어 문이 열리기는 했지만, 그 당시 선교부는 폐쇄되어 있었다. 타이완도 헌납되지도 않았고, 문이 열리지도 않았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였다. 아시아 전 지역에 고작 60명의 선교사가 있었으며, 그것도 모두 일본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서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



사진 : 북극동 선교부 선교사들과 폴 시 앤드러스 선교부 회장. 앞줄 왼쪽부터, 뉴웰 김볼, 클로드 뉴먼, 엘더 플레처, 던 앤더슨, 게일 카, 돈 파웰, 앤드러스 회장, 엘더 덴턴, 레리 오르메. 서울 고등학교 근처, 신문로 2가 1-183번지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숙소에서 찍은 사진으로 추정됨.

겸손해져 있었고 정치적 여건도 충분히 안정적이었다. 게다가 여섯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후기 성도 군인들의 노력 그리고 일본과 홍콩에 있었던 초기 선교사들의 노력을 통해, 각 나라에는 교회와 선교사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²

앤드루스 회장은 스테이플리 장로에게서 선교부 회장으로 성별받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적었다.

“우리(앤드루스 회장과 아내)를 성별하실 때 스테이플리 장로는 가급적 빨리 한국으로 진출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한국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타는 듯한 열망을 느꼈으며, 한국을 관리하던 6년 7개월 동안,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³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주

1. Newel Kimball, "My Odessay", part 1: Newel Kimball and Korea, First Time in Korea.
2. Paul C. Andrus, "1955년 북극동 선교부 및 남극동 선교부 조직".
3. Paul C. Andrus, "Church Beginnings in Korea 1955-1962".



자립 ON, moving forward
자립의 소망, 열매를 맺다

3

자립 지원 센터에서는 자립의 원리의 토대 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기사는 자립 지원 센터에서 제공한다.

종교 교육원 ‘커리어 프론티어’ 수업 후기

동대문 스테이크 화양 와드 최다혜 자매

커리어 프론티어는 취업을 준비하던 내게 매우 유용한 종교 교육원 수업이었다.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실제로 준비하고 연습하도록 도움을 받았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신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그 사실을 느꼈으며, 취업이 확정된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감사하게 되었다. 수업 중 내게 가장 유익했던 다음의 4가지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다.

- 30초 자기 소개(Me in 30 seconds, 미래의 고용주에게 서너 문장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하는 시간): 언제 어디서나 나와 나의 목표를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나의 목표를 돌아보고 계속해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
- 강력한 표현(Power Statement, 특정 회사에 대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말해 보는 시간):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장점과 강점에 대해 파악하는

실질적인 기회였다. 이 시간 동안 나의 강점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연습했다. 실제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내 강점이 무엇인지 질문했고, 나는 연습한 대로 자신있게 답할 수 있었다.



- 숨어 있는 좋은 직업(Hidden Job Market,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성공적으로 취업하는 방법을 배움): 자립에 도움이 되는 팁, 즉 인맥의 중요성을 배웠다. 실제로 취업하고 싶은 업종에 계신 분들과 왕래하고, 취업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 외부 연사 특강: 실질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면접에 대한 연사의 특강을 듣고 조언대로 면접에 임했다. 넓게는 사회 생활과 인생에 대한 조언도 들었다. 특히 후기 성도로서 나는 간증이 깊게 와 닿았고, ‘성공한 후기 성도’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

회원 참여 프로그램

MPP: Membership Participation Program

“교회 회원들에게 희생을 통해 이 아름다운 예배의 집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건물 청소와 참여하기를 권유합니다. ……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 프로그램이 본래 금전을 절약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성품을 발전시키고,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희생하고 왕국을 세우기 위한 기회임을 회원들에게 가르치는 신권 지도자들은 그들이 기울이는 노력에서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Ensign*, 1999년 6월호, 75쪽)

회원 참여 프로그램은 회원들이 교회 집회소 청소와 관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집회소의 성스러운 속성과 목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집회소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들이 이에 참여할 때, 주님의 예배의 집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고 더욱 깊어진다.(집회소 및 기타 교회

재산에 대한 시설 관리 지침, 4쪽 참조)

최근 지역 시설 관리 사무소는 회원들이 교회 집회소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영상을 제작했다. 이 동영상은 교회 청소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방법을 안내한다. 여섯 편의 짧은 동영상은 교회 한국 홈페이지(l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봉사 선교사 박기동 장로 · 허차회 장로

박기동 장로와 허차회 장로는 대전 선교부 지역에서 와드 건물을 관리하는 봉사 선교사다. 이들은 회원들이 와드 지부 건물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집회소 관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박 장로와 허 장로는 이렇게 설명한다.

“교회 집회소의 깨끗함은 경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원과 구도자, 방문자들이 교회에 참석하며 받는 느낌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회소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스러운 집이라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회소에서 편안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허차회 장로는 봉사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말한다.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 봉사 선교사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고 바로 감독님과 접견을 하고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곧 부름을 받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 침례받은 박기동 장로는 조금이라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광주 스테이크

센터의 시설 담당 책임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그의 아내와 함께 봉사 선교사로서 대전 선교부 지역 내 건물 관리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박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부터 와드 건물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발전할 것입니다. 저희는 회원들이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을 돕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



긴 치마를 가져오렴

대구 스테이크 구미 와드 김수정 자매

작년 겨울 방학에 이모가 살고 계신 유타에 놀러 갔다. 출국 전, 내가 가져가야 하는 물건이 있는지 여쭙 보자, 이모는 내가 입을 '긴 치마'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 함께 교회에 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모 댁에 있는 동안,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정의 행복을 느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렸고, 자기 전에도 가족과 함께 기도했다. 가족이 모여 활동과 게임을 했다. 내가 바라 왔던 가족의 모습이었고, 복음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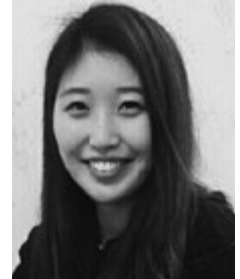
귀국한 뒤, 나는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섰다. 대학교가 있는 지역인 구미 와드에서 자매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배웠다.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 그리고 내게 썩트기 시작한 간증을 나눌 때마다 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느꼈다. 2014년 4월 5일, 나는 침례를 받았다.

복음을 배우고 침례를 받으면서, 내 생활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긴 치마'를 입고 교회에 가는 것처럼, 예전과는 다른 생활 방식을 따라야 했다. 이전까지 먹던 것을 먹지 말아야 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예전과는 달리 선지자와 지도자의 권고에 따라 생활 방식도 바꾸어야 했다.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일단 변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혹에 견디고 발전할 힘을 주셨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즐길 수 없고, 대화 주제를 바꿔야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보다, 복음을 따르고 견뎠을 때 오는 축복과 행복을 알기에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다.

내가 개종한 것은 '새 공기를 얻은 것과 같다. 참된 복음이라는 새로운 공기를 통해 마음과 몸이 깨끗해진 기분이다. 일상에서 감사함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만났고, 앞으로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할 수 있게 변화되었다. ■



사실 난 너희 가족이 부럽다

부산 선교부 박종민 장로

나와 친한 친구들이 내 믿음에 대해 장난스레 농담을 할 때가 있었다. 특히 한 친구는 금식하는 것을 특이하게 생각했고, 내가 주말에 친구 모임에 가지 않고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갈 때, 친구들이 밤을 새우며 노는데 나 혼자만 집으로 갈 때, 나를 마마보이라고 놀리기도 했다.

내 친구 중에 나를 통해 침례의 물가로 인도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 사실이 부끄러웠고, 내가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선교 사업 관련 모임이 있을 때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길에서 전도할 때에도 자꾸 소심해졌다.

친구들의 놀림에 상관없이, 나는 스무 살이 넘어서도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고 가족의 규칙과 전통을 지켰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내 친구는, "나는 너희 가족이 부럽다."라며 의외의 이야기를 했다. 자신의 가족은 무척 자유로운 분위기이지만 어떨 땐 서로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다. 곧,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처럼 우리 가족의 모습을

부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회에 오겠다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헛살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후 나는 당당해졌다. 나는 더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복음 안에서 생활했다. 우리 가족이 교회의 원리 안에서 생활하려 노력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계속 자연스럽게 보여 주었다. 이전에는 선교 사업에 대해서도 "2년 동안 어디 좀 간다."라며 어물쩍 말했지만, 이 일 이후 선교 사업이 무엇인지 친구들에게 잘 설명해 주었다. 친구들은 나를 인정해 주고 또 응원해 주었다.

나는 친구들 앞에서 실수도 했을 것이고, 때로 좋은 행동을 못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으로 우리는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계속 노력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펼칠 수 있다. 선교 사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지닐 수 있도록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계속해서 영을 지니고 노력할 때 그분의 계획이 진행되어 갈 것이다. ■



봉사 선교사

자매 3명/장로 3명



김영희 자매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
출판미디어서비스부



이옥 자매
영동 스테이크
수지 와드
성전



정해원 장로
강서 스테이크
김포 와드
자립지원서비스



최창덕 장로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가족역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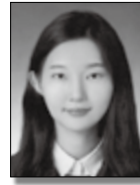
추윤희 자매
인천 스테이크
연수 와드
홍보위원회



허차회 장로
광주 스테이크
총장 와드
시설부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자매 7명/장로 3명



곽다영 자매
광주 스테이크
총장 와드
서울 남 선교부



구성아 자매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서울 선교부



김덕호 장로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서울 선교부



김신영 자매
순천 지방부
여수 지부
서울 남 선교부



김인중 장로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서울 남 선교부



박수현 자매
영동 스테이크
수지 와드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북 선교부



박장미 자매
부산 스테이크
김해 와드
서울 선교부



배준심 자매
청주 스테이크
예성 와드
서울 남 선교부



변치규 장로
인천 스테이크
만수 와드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북 선교부



이혜현 자매
전주 스테이크
정음 와드
서울 남 선교부

지역 소식 기사 공모전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여러분의 기사를 공모합니다. 선발된 기사는 지역 소식에 게재되며 부상(副賞)이 주어집니다. 또한, 최우수상을 받은 참가자는 지역 소식 자유 기고자로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기사 주제:** 지역 소식 게재에 적합한 한국 후기 성도 소식, 개인, 가족, 정원회 및 단위 조직의 선행과 진솔한 간증 등
- 분량 및 형식:** 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수기(手記) 작성 배제), 글자 크기 10pt로 약 0.5~2쪽 분량
- 자유 기고가 자격:** 유효한 성전 추천서 소지자 또는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자
- 우편 및 이메일로 2015년 3월 31일까지 제출**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 5
리아호나 지역 소식 담당자 앞
이메일: kah_liahona@hanmail.net
- 문의**
전화: 02)2232-1441(내선 564)
카카오톡 아이디(ID): 리아호나

앞으로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새로 부름받은 전임 선교사와 함께 봉사 선교사도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 모두 소개드리기에 지면이 부족하여 다음 호에 계속해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서울 남 스테이크
서초 와드 감독: 조남성 형제(전임: 박봉규 형제)
대전 스테이크
선화 와드 감독: 이용재 형제(전임: 이재희 형제)